

광주매일신문 제11기 창조클럽 아카데미 제11강 '와인과 행복 ing'

이연호 초빙교수

# “와인 즐기며 오감 만족 행복도 느껴보세요”

### 제약회사 재직 중 'CEO들 와인 스트레스' 설문 접하고 관심 '포도 품종·숙성 방법 품질 좌우'...음용법·추천 와인 등 소개

“와인의 색, 향, 맛을 즐기며 오감으로 전해지는 행복감을 느껴보세요.”

광주매일신문 주최로 지난 10일 오후 서구 홀리데이 인 광주호텔에서 열린 제11기 창조클럽 아카데미 제11강에서 이연호(49) 소믈리에가 '와인과 행복 ing'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강연과 대학 초빙교수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이 소믈리에에 먼저 '술을 한 잔도 마시지 못하는' 자신이 아카데미를 운영할 정도로 와인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를 설명하면서 원우들의 흥미를 유발했다.

이 교수는 “과거 제약회사에서 근무했는데, CEO 등 경영인의 88%가 와인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경험이 있다는 설문조사를 접하고 와인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다”고 말해 비슷한 고민을 하는 원우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어 본격적인 강의에 돌입한 이 교수는 와인 발효 과정과 효능, 생산지를 설명하면서 오랜 전통을 이어 온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과 상대적으로 와인의 역사가 짧은 칠레, 호주 등 여러 국가를 소개했다.

그는 “프랑스는 포도가 생산되는 지역별로 와인병의 모양이 달라진다”며 “샴파뉴(Champagne), 보르도(Bordeaux), 알자스(Alsace), 부르

고뉴(Bourgogne) 등 지역에 따라 특색 있는 모양을 가진 것도 재미있는 요소”라고 설명했다.

꼭 기억해야 할 레드 와인의 품종으로 ▲카베르네 소비뇽(Cabernet Sauvignon) ▲메를로(Merlot) ▲시라즈(Shiraz)를, 화이트 와인 품종은 ▲샤르도네(Chardonnay) ▲소비뇽 블랑(Sauvignon blanc) ▲리슬링(Riesling)을 꼽았다.

이 교수는 “레드 와인에서는 짜고 매운 한국 음식과 잘 어울리는 시라즈를, 화이트 와인에서는 풀 향이 추억을 자아내는 소비뇽 블랑을 추천해주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어 “와인은 원료인 포도의 품종과 숙성 방법에서 품질이 좌우된다”며 “오크나무 조직의 폴리페놀 성분 중 타닌(Tannin), 바닐린(Vanillin)이 와인의 맛과 향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좋은 오크통에서 숙성하면 맛있는 와인이 된다”고 강조했다.

강연에서는 소믈리에 나이프를 사용해 마개를 제거하는 시연과 와인을 맛 볼 수 있는 시간도 주어졌다. 원우들은 서로 자연스럽게 건배하며 유쾌한 분위기를 즐겼다.

이 교수는 “와인 글라스를 위부터 차례대로 립(Lip), 보울(Bowl), 줄기(Stem), 베이스(Base)로 구분하는데 와인을 마실 때는 줄기나 베



지난 10일 오후 서구 홀리데이 인 광주호텔에서 열린 제11기 창조클럽아카데미 제11강의 초청 강사인 이연호 소믈리에가 오감으로 즐기는 와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정은솔기자

이스를 잡아야 한다”며 “와인을 맛 보기 전 충분히 흔드는 스월링(Swirling)으로 풍미를 높여 충분한 향을 느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화이트 와인은 반드시 시원하게, 레드 와인은 마개를 따고 한두 시간 후 실온 상태에서 마셔야 제대로 즐길 수 있다”고 추천했다.

덧붙여 “화이트 와인을 마신 뒤에는 드라이-스위트를, 레드 와인을 마신 뒤에는 풀바디·미디엄 바디 등으로 맛을 표현하지만 와인 종류에 상관 없이 내가 느낀 그대로를 얘기하는 것이 가장 좋다”며 “오늘 강연을 계기로 누구나 부담 없이 와인을 접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부연했다.

이 교수는 세계 최고의 와이너리(Winery)들이 진출한 칠레 와인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그는 “칠레는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커 병해충이 살 수 없는 환경이라서 고품질의 포도 재배가 가능하다. 일부러 노력하지 않는 한 나쁜 와인을 만들 수 없는 곳이 칠레”라며 “10만원대 프랑스 와인보다 맛이 좋은 2-3만원대 칠레 와인도 많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마지막으로 이탈리아 지방의 네그로아마르(Negroamaro) 레드 와인을 원우들에게 추천하며 열린 환호 속에서 강의를 마무리했다. /정은솔기자



완도경찰, 추석명절 특별방범 합동순찰

완도경찰서는 11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 날 관내 방범 협력단체와 특별 합동순찰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순찰은 자율방범대와 협력 단계가 참여한 가운데 버스·여객선터미널, 다중 밀집장소 등 귀성객의 이용이 잦은 구역과 금융기관, 전통시장, 주택가, 생활안전시설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완도경찰은 추석 명절 증가하는 치안 수요와 각종 서민생활침해범죄 등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지난 9일부터 오는 18일까지를 추석 명절 방범활동 강화기간으로 정했다.

범죄예방단팀을 중심으로 다세대 밀집지역 및 다면적 치안요소 분석을 통해 범죄 취약지를 제거하고, 관계기관 및 단체와 함께 다양한 범죄 예방 활동을 병행할 방침이다.

이상일 완도경찰서장은 “경찰서의 전 기능을 활용한 추석 명절 특별 치안활동을 통해 귀성객들이 어느 해보다 평온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윤보현기자



영광경찰,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캠페인

영광경찰서는 11일 “전날 영광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개학기 등굣길 어린이 보행 안전 확보를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에는 박인신 영광경찰서장, 영광초등학교장, 녹색어머니회 등 20여명이 참석했으며, 어린이보호구역을 통행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군민 동참을 호소하는 등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박인신 영광경찰서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속도 준수, 불법 주차 금지 등 운전자들과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영광=김동규기자



나주경찰, 추석연휴 특별 음주단속 운영

나주경찰서는 11일 “추석 연휴 음주운전 차단을 위해 오는 18일까지 특별 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나주경찰서는 지난 8월 한 달간 음주운전 단속을 벌여 38건을 적발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21건이 적발돼 81% 늘었다. 적발된 운전자 중 운전면허 취소는 19건, 면허정지는 17건, 추징 거부는 2건으로 나타났다.

장진영 나주경찰서장은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는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불시단속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정종환기자

## 부음

- ▲김영례씨 별세, 송병태(전 광주 광산구청장)씨 장모상·정희성(연합뉴스 광주전남취재본부 기자)씨 외조모상=발인 12일(목) 오전 9시30분 광주 스키야드제1장 102호실 (062-951-1004).
- ▲이양원씨 별세, 이성주(KIA 타이거즈 포수)씨 조부상=발인 12일(목) 오전 8시40분 목포호사량장례식장 20호(목포시 백내대로231번길 13, 상동) 061-242-7000.

## 광양교육지원청, 학교장 등 대상 ‘청렴 캠페인’

광양교육지원청은 11일 “지난 9일 관내 학교(원)장을 대상으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광양교육지원청 주관 청렴 캠페인은 다양한 청렴 정책 홍보와 청렴 메시지 작성, 사진으로 이어가는 청렴 릴레이로 진행된다.

이번 캠페인은 학교장 공감토크회와 연계해 중합청렴도 측정 체계와 전남도교육청 청렴도 수준을 안내하고 학교장의 청렴성 향상을 위한 시간으로 준비했다.

광양교육지원청은 오는 10월17-18일 개최되는 ‘2024 Sunshine 광양교육 한마당’을 통해 교직원과 학생 청렴 인식 개선을 위한 청렴 부스도 운영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4일부터 교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학교로 찾아가는 청렴 컨설팅’은 청렴 사책 홍보, 청렴 동기 부여를 위한 청렴 퀴즈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김여선 교육장은 “청렴 가치 공유와 청렴 의식 제고를 위해 학교장의 역할과 조직 문화 개선이 중요하다”며 “청렴도 향상을 위해 서로 존중하고 신뢰받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광양=양홍렬기자



광양교육지원청 주관 청렴 캠페인. 다양한 청렴 정책 홍보와 청렴 메시지 작성, 사진으로 이어가는 청렴 릴레이로 진행된다.

## 보성경찰, 학교폭력·담페이크 범죄 예방 캠페인

보성경찰서는 11일 “전날 벌교초등학교·벌교여자중학교에서 유관기관과 함께 등굣길 학교폭력·담페이크 범죄예방 및 교통안전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캠페인에는 보성교육지원청, 녹색어머니회 등 관내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현수막과 피켓, 홍보 물품을 이용해 학교폭력 예방과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 담페이크 범죄 예방, 마약·도박의 심각성 등을 알렸다.

고은경 보성경찰서장은 “청소년들이 담페이크 범죄와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



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적극 협조하고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보성=임병연기자

## 담양소방, 추석 명절 ‘안 주고 안 받기’ 캠페인

담양소방서는 11일 “전날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추석 명절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

캠페인은 담양소방서 본관 입구에서 출근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선물은 사양! 마음만 받겠습니다’ 문구가 새겨진 초코파이를 나눠주며 청렴문화 실천 의지를 다졌다.

윤예심 담양소방서장은 “전 직원이 청렴하고 검소한 명절 보내기에 적극 동참해 공직사회의 청렴문화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기자



담양소방서 직원들이 추석 명절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캠페인을 펼쳤다.

## 송원대 미용예술학과 ‘월드뷰티 국제공모전’ 대거 입상

송원대학교는 11일 “미용예술학과가 ‘제2회 월드뷰티 아트&디자인 국제공모전’에서 대거 입상하는 쾌거를 거뒀다”고 밝혔다.

월드뷰티 국제공모전은 사단법인 월드뷰티 아트협회가 주관하고 월드뷰티 아트&디자인 국제공모전 조직위원회가 주최해 지난 5-6월에 걸쳐 국가기술종목과 일반작품 부분으로 진행됐다.

미용예술학과 석사과정 윤한별·박가영이 각

각 헤어커트와 메이크업 아트마스크에서 금상을 수상했고, 김지형(1학년)·곽혜진(4학년)·김여정(4학년)·노도희(4학년)가 헤어드라이, 헤어업스타일, 특수분장, 네일마블에서 은상을 차지했다.

박장순 송원대 미용예술학과 학과장은 “평소 미용학 전공 이론과 실무 역량 강화에 매진한 학생들이 노력한 만큼 좋은 성과를 얻어 기쁘고 뿌듯하다”고 말했다. /김대기자



## 전남도, 제17회 치매극복의 날 기념행사 성료

전남도는 11일 화순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에서 제17회 치매극복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전남도, 전남광역치매센터, 화순군이 공동 주관했으며, 구복규 화순군수, 임지락 전남도의원, 오형열 화순군의회 의장, 22개 시·군, 유관기관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매년 9월21일은 ‘치매극복의 날’로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알츠하이머협회(ADI)와 함께 가족과 사회의 치매 문제를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1985년 지정했다.

기념식에서는 치매관리사업 및 정책 추진에 기여하고 치매 예방, 치매환자 보호 지원 등 일

선에서 헌신한 개인·단체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전남지사 표창 등을 수여했다.

치매환자 및 가족 대상 마음치유 프로그램에 기여한 공로로 전남도마음건강치유센터장이 ‘대통령 표창’, 전남도는 지역사회 치매예방 관리를 적극 추진한 공로로 우수 기관에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이상심 보건복지부장은 “예방-치료-돌봄의 전 과정을 아우르는 ‘전남형 치매 돌봄제’를 추진, 치매 어르신과 가족들이 거주하는 곳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기자